“부처님 같이”…출가·열반정진 이어진다

조계종 포교원 수행공모전
어린이 만화도 제작 배포
전국 사찰들도 기도 입재
코로나 확산으로 줄취소서
온오프라인 병행기도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에서 진행하는 출가 · 열반재일 수행공모포스터(사진 왼쪽)와 배포된 어린이 만화(사진 오른쪽).

출가 · 열반재일을 맞아 다양한 수행정진이 전국에서 이어진다. 불자들의 수행문화 진작을 위하여 불교 4대명절 수행정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은 출가재일(음력 2월 8일)과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을 맞아 ‘수행 공모전’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속에서도 공동체의 힘으로 다함께 수행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불자의 삶을 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번 ‘수행공모전’은 사찰 어린이 · 청소년법회, 불교대학, 대학생 불교동아리 등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및 기관의 신도 신행조직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소 5인 이상이면 대면 활동일 경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내용으로는 3월 20일 출가재일에서 3월 27일 열반재일에 이르는 일주일 동안 수행모임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정한 계획에 따라 출가 · 열반재일의 의미를 잘 살려 정진하는 내용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지원할 수 있다.

포교원은 ‘수행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모임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불서와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또한 출가 · 열반재일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행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PDF파일로 된 온라인 책자와 어린이용 컷툰 만화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온라인 책자와 어린이용 컷툰 만화는 △출가 · 열반재일의 의미 △수행법 안내 △수행공모전 참여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컷툰 만화는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원 산하단체 홈페이지 및 SNS채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만 출가열반재일 기도를 진행하거나, 출가열반기도를 취소했던 전국 사찰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가열반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의 경우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금강경〉 독송기도를 8일간 봉행한다. 법왕루에서 진행되는 이번 독송기도는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20일과 27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주지 원명 스님을 법사로 하여 특별법회도 이어진다. 특별법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봉은사는 “코로나 기간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신도대중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정진기간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3월 20일 입재해 3월 25일 회향하는 출가열반재일 기도를 진행한다. 조계사는 이번 기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법당 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사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조계사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가 안전하기를 기도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국제선센터 등 사찰들도 3월 20일부터 출가재일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출가열반재일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출가열반재일은 싯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발심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출가재일과 45년간 중생교화를 마치신 후 열반한 열반재일을 기리는 주간이다. 일주일 사이인 이 기간에 사부대중이 부처님 출가 정신과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와 정진에 집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해에는 가정에서의 기도 수행을 권장했다.

4.7보궐선거 종교편향 방지 추진

종교평화위 1차 회의서 올해 사업 계획도 확정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올해 4월 7일 예정된 보궐선거 및 2021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체계적인 종교차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는 3월 10일 2021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 선거시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올해 주요사업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도심 스님과 총무원 사회부장 성공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방창덕 포교사단장, 김상규 중앙신도회 부회장,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 김상경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도심 스님은 “현재도 다양한 종교편향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평화를 위한 대안마련에 종평위의 역할과 의무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평위는 올해 공직자 선거시 종교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사무소, 소속 당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향후 체계적인 종교차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포교사단, 중앙신도회, 대불청, 대불련과 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 연구사업으로는 △‘종교편향과 차별이 왜 문제가 되는지’와 관련해 대중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카드뉴스 등 교육 콘텐츠 개발 △공직자 사회의 차별 실태 파악 △외국에서의 증오범죄법 적용사례 등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종평위는 최근 진행 중인 종교차별 현안을 공유했다. 종평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지선버스인 1222번 진아교통이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 분은 예수입니다’라는 선교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서울시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종평위는 이와 관련 “향후 불교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미얀마 폭력진압, 불교계 규탄 잇따라

다불련 · 대불청 등 입장문 KCRP도 입장 표명 논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군부의 폭력진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계도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회장 담마끼띠, 이하 다불련)는 3월 11일 ‘미얀마 군부는 폭력 진압을 그쳐야 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불련은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신자인 불교국가 미얀마가 총성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하다”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젊은이들이 총격에 무참히 죽어가고 부당상한 시민들이 치료받던 병원과 대학조차 군이 무력으로 점거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불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나라에서 이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한 사상자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군부는 이제라도 업과 인과의 지중함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가 중시되는 시대에 무력진압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로서 필연적인 과보로 돌아올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와 비폭력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전쟁이나 폭력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한 다불련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자비와 평화를 다시 깃들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며 “비폭력과 자비의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불교청년회도 3월 10일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청년불자 성명’을 내고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불자들은 군부의 무력 탄압에 희생된 미얀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미얀마 군부의 무력사용 중단과 인권보장,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대불청은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KCRP도 3월 11일 회의를 열고 3월 25일 총회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성명서 채택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자비와 원력으로 코로나 이겨내자”

포교사단, 포교사의날 개최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21주년 및 제8회 포교사의날 기념식이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방창덕 단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단장 및 포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방창덕 단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모든 포교활동에 큰 제한을 받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화합 단결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7일 포교사의 날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번엔 영세서점 위해 뛰었죠”

진오 스님, 서점 위해 마라톤
3월 9일 서울서 정진 회향해
부산서 서울까지 525km 걸어
인터파크송인서적 사태에 발심

“어려운 서점들의 형편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건강한 책 생태계를 위하여 달린다’를 주제로 진행한 525km의 마라톤 대장정이 3월 9일 회향했다. 2월 26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출발해 3월 4일 대전 계룡문고를 거쳐 3월 9일 서울 팽스북스까지 스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위를 달렸다.

스님이 이번에 마라톤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영업이 멈춘 국내 2위 매출의 서적 도매업체 인터파크송인서적 사태 소식을 접하면서 부터다.



기부마라톤 중 동네서점을 찾아 서점활성화의 중요성을 전한 진오 스님(사진 오른쪽).

평소 스님을 후원했던 구미 삼일문고 김기중 대표가 안타까운 동네서점들의 상황을 전했고 스님은 발벗고 나섰다.

스님은 “서점인들의 염원을 안고 매일 10시간씩 달렸다”며 “도매업체가 무너지면 영세한 서점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이야기에 공익적인 의미가 있어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마라톤 중간 중간에 작가와의 만남과 동네책방 방문 등도 진행했다. 코로나19 와중에 인터넷 서점과 온라인 콘텐츠의 성장 이면에 감춰진 오프라인서점의 쇠락 현장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진오 스님은 “무작정 시작한 마라톤이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줘 감사했다. 특히 사찰에서 도움을 줘 너무나 감사했다”며 “불자들이 특히 영세 서점 공동체 상생에 관심을 가져줘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무엇보다 인터파크송인서적 인수조합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늘고 있어 희망적이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러한 원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꿈도 꾸고 있다. 2019년 진행 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미국 대륙횡단 기부 마라톤이다.

진오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양극화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공동체를 함께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기부 밖에 없다”면서 “내년 6월 경에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미국에서 중단된 기부마라톤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org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4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31일(수)**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400만원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3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31일(수)**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8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1. 3. 20.(토) 13:30~17:4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제1주제 (밀교의 시각으로 본 대행스님의 ‘주인공’ -『한마음요전』을 통하여-)
발표 : 강대현(위덕대) 좌장 : 권기현(위덕대)
논평 : 1. 정성준(동국대) 2. 이석환(동국대)
□제2주제 (한국 불교의 사상적 전통과 한마음선원 석탑의 조형 의미)
발표 : 도윤수(인하대) 좌장 : 문명대(동국대)
논평 : 1. 법우스님(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2. 김기상(아리건설 대표)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